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구간 진입

모두가 불편해하는 가격에서, 기대수익률은 다시 높아집니다

Author: Ricky Sohn

Email: bluelakehq@gmail.com

Relevant Links: www.lightwoodcap.com, www.bluelake.kr, link.yumyumcoin.xyz

Summary | 핵심 요약

- 비트코인 6만달러에는 금리상승 우려·강달러·ETF 유입 둔화 등 시장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악재는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 파생시장 과열은 해소됐고, MVRV¹는 약 1.1x로 저평가에 가까운 구간입니다. 온체인·파생상품시장 지표 모두 급락과 청산을 거친 이후의 재정비 국면을 시사합니다.
- 완벽한 바닥을 맞히는 것보다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을 장기 자산으로 인정하는 투자자라면 자산배분전략을 재검토할 만한 구간입니다.

1. MVRV(Market Value to Realized Value)는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 가격이 투자자들의 평균 취득가 대비 부담이 낮은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I. 서론: 질문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6만달러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조정 폭은 약 -50%. 물가와 금리는 여전히 부담이며, 현물 ETF 자금 흐름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좋은 뉴스가 나오고 차트가 회복된 뒤에야 투자에 나서지만, 그때는 대개 가격 매력이 사라진 뒤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가 아니라 “지금 가격이 리스크 대비 충분히 매력적인가”입니다.

필자는 6만달러 부근이 완벽한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 투자자가 자산배분을 검토해야 할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이제 금리, 달러, 기관 자금, 파생시장, 온체인 데이터가 함께 움직이는 글로벌 자산인 만큼, 거시경제·수급·파생시장·온체인·기술적 지표 다섯 축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II. 거시경제: 악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높은 금리와 강달러는 현금흐름이 없는 비트코인에 분명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악재가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가”입니다. 지정학 리스크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 금리 인하 기대 후퇴, 기관 자금 유입 둔화가 모두 겹친 상황에서 형성된 지금의 6만달러는 시장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변수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가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거시환경이 여기서 더 악화될 가능성보다,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유동성 환경이 나아질 가능성이 더 큼니다. 모두가 편안해진 뒤에는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편한 가격일 때 장기 기대수익률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III. 수급: 자금이 빠질 때 만들어진 가격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2024년 이후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현물 ETF였습니다. 하버드대 기금의 IBIT 편입,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비트코인 ETF 노출 사례에서 보듯, 비트코인은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의 검토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조정 역시 앞서 언급한 거시 리스크에 따른 기관 자금의 리밸런싱에 가깝습니다. 고금리와 강달러가 이어지면서 일부 기관성 자금은 비트코인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은 AI·빅테크 중심 자산으로 배분을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은 둔화됐고, 일부 구간에서는 유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떠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이상,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영구히 제외하기보다 시장 환경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최근 ETF 유입 둔화와 일부 유출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구조적 이탈이라기보다, 고금리·강달러 환경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비중 조절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림 1 비트코인 현물 ETF (IBIT) 가격 추이 (주봉 기준)



자료: TradingView

여기에 구조적 흐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트레티지(NASDAQ: MSTR)로 대표되는 DAT, 즉 Digital Asset Treasury입니다. 채권 발행과 자본 조달로 비트코인을 지속 축적하는 이 구조는 비트코인이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올라가는 자산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TF가 ‘투자 접근성’을 열었다면, DAT는 ‘보유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이 흐름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스트레티지는 2020년 이후 비트코인을 꾸준히 축적해 왔고, 최근 기준 보유량은 약 84만7000 BTC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 가격 조정으로 매수 속도와 자본 조달 여건에는 부담이 생겼지만, 핵심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DAT 기업들은 단기 가격 변동과 별개로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구조적 매수 기반을 넓히는 요인입니다.



그림 2 MSTR 비트코인 매수 타임라인



자료: Strategy.com

IV. 파생시장: 레버리지 과열은 상당부분 정리됐습니다

급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락 그 자체보다 레버리지 청산의 연쇄입니다. 그래서 파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얼마나 빠졌는가”가 아니라 **과열이 얼마나 정리됐는가**입니다. 상승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았던 펀딩비는 최근 조정 과정에서 빠르게 정상화됐고, 일부 구간에서는 중립 또는 음수로 전환됐습니다. 미결제약정도 고점 대비 감소하며 레버리지 포지션 정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림 3 파생상품 미결제 약정액 추이



자료: CryptoQuant

지금의 파생시장은 “과열된 상승 초입”이 아니라 **“과열이 해소된 이후의 재정비 구간”**에 가깝습니다. 단기 자금이 빠져나간 시장은 변동성은 남아 있어도 구조적으로 더 건강하며, 이런 환경에서 형성된 가격은 현실적인 수급 위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V. 온체인: MVRV 1.1, 과열은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취득가와 미실현 손익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지표인 MVRV는 시가총액을 실현가치로 나눈 값으로, 평균 취득가 대비 현재 가격 수준을 보여줍니다. 2026년 7월 초 기준 비트코인의 MVRV는 약 1.1, 즉 시장 평균 매입가 대비 약 10% 위에 있는 상태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 상승장 고점: MVRV 3~4 이상, 대부분이 큰 미실현 이익을 보유한 과열 신호
- 상승 초입·중간: 1.5~2.5, 시장이 낙관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구간
- 하락장 바닥·극단적 공포: 1 이하, 평균 매입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투매 구간

이 기준에서 현재 1.1은 완전한 바닥은 아니지만 과열과는 거리가 먼 ‘저평가에 가까운 중립 구간’입니다. 직전 고점에서 MVRV가 2 이상까지 올라갔던 것을 감안하면, 미실현 이익이 상당 부분 정리된, 과열이 한 번 식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은 기대수익률이 다시 개선되는 구간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그림 4 비트코인 MVRV 추이와 역사적 구간 비교



자료: CryptoQuant



VI. 기술적 지표: 바닥 확인보다 기대수익률입니다

첫째, 6만달러 부근은 **200주 이동평균선**과 가까운, 과거 사이클마다 큰 변곡점을 만들어온 구간입니다.

둘째, 5만8000달러는 **2024년부터 여러 차례 매수세가 유입된 강한 지지** 구간입니다.

셋째, **상단 저항**. 12만6000달러 고점 이후의 하락 추세선은 아직 돌파되지 않았습니다.

즉 아래에서는 장기 지지를 테스트하고 위에서는 추세 저항에 막힌 구조로, 단기 방향성은 불확실하지만 리스크 대비 기대수익률은 유리해지는 구간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림 5 비트코인 가격 추이



자료: TradingView

VII. 결론: 확신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60K는 편안한 가격이 아닙니다. 금리와 달러 환경은 여전히 부담이고, ETF 수급은 뚜렷한 회복을 보여줘야 하며, DAT 구조도 자본 조달 여건에 따라 매수 기반과 리스크 요인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때문에 장기 기대수익률은 다시 점검할 만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된 구간에서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바닥을 맞추는 것보다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을 장기 자산으로 보는 투자자라면, **현재 구간은 자산배분 관점에서 다시 점검할 만한 가격대입니다.**



용어 설명

MVRV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실현가치로 나눈 온체인 지표.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취득가 대비 현재 가격 수준을 보여줍니다.

펀딩비(Funding Rate)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롱과 숏 포지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주고받는 비용. 지속적으로 높으면 롱 쓸림, 즉 과열 신호로 해석됩니다.

DAT(Digital Asset Treasury) 기업이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보유하는 구조. 스트레티지(구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대표 사례입니다.



Compliance Notice

본 기고문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시장 해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기고문은 특정 가상자산, 금융투자 상품, 증권, 파생상품 또는 기타 투자대상에 대한 매수, 매도, 보유, 청약, 교환, 대여, 예치, 스테이킹, 레버리지 거래 또는 기타 어떠한 투자 행위도 권유·추천·제안하거나 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기고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공개자료, 시장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 제3자 리서치 및 저자의 주관적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자 및 발행자는 본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계속성, 신뢰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는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기고문은 독자의 개별적인 투자목적, 재무상태,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투자기간, 세무상황, 법률상황 또는 기타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기고문의 어떠한 내용도 독자 개인에게 적합한 투자전략이나 맞춤형 투자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자는 본 기고문에 의존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투자 여부는 반드시 본인의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시장 유동성, 규제 변화, 거래소 리스크, 커스터디 리스크, 기술적 결함, 해킹, 프로토콜 변경, 거시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손실할 수 있는 고위험 자산입니다. 과거의 가격 흐름, 수익률, 온체인 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또는 백테스트 결과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자, Lightwood, Blue Lake Research, Bluelake 및 앰암코인은 본 기고문 또는 본 기고문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해석, 재배포, 인용 또는 이에 기초한 투자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간접적 손실, 기회비용, 거래손실, 세금상 불이익, 법률상 불이익, 데이터 오류로 인한 손실 또는 기타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기고문에 언급된 가격, 지표, 전망, 시나리오 및 의견은 작성 시점의 시장 상황을 전제로 한 참고용 의견일 뿐이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자 및 발행자는 본 기고문 발행 이후 시장 상황 변화, 데이터 변경, 전망 수정 또는 오류 발견과 관련하여 본 기고문을 업데이트하거나 정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기고문에 포함된 제3자 데이터, 차트, 자료 및 외부 링크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저자 및 발행자는 제3자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 또는 해당 자료에 기초한 판단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본 기고문 작성일 현재 비트코인(BTC)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기고문과 관련하여 저자, Blue Lake Research, Bluelake 및 앰암코인이 특정 거래소, 발행사, 운용사, 프로젝트, 투자회사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보수, 수수료, 광고비, 자문료, 투자금, 리워드 또는 기타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본 기고문에 언급된 자산과 관련하여 독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도의 중대한 이해상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자 및 관련 주체는 본 기고문 발행 전후로 본문에서 언급된 자산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거래 방향은 본 기고문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고문의 견해는 저자 개인, Lightwood, Blue Lake Research의 시장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저자가 소속되었거나 과거에 소속되었던 기관, 회사, 단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앰암코인은 Bluelake가 소유·운영하는 디지털자산 리서치 및 콘텐츠 브랜드입니다. 앰암코인은 시장 데이터와 리서치를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고문 내 앰암코인 관련 언급은 브랜드 및 서비스 소개 목적을 포함하며, 특정 자산의 매매 또는 투자행위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수정, 배포, 전송, 인용, 재가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기고문을 인용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도 원문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도록 편집하거나, 특정 투자행위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